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장윤희**

요 약

구결은 한자를 이용하여 국어를 표기하는 차자표기법의 하나로서 한문 원문을 국어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구결에는 音讀口訣과 釋讀口訣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석독구결은 한문 원문을 완전한 국어 문장에 가깝게 풀어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한문 원문을 풀어 읽은 석독구결문은 15세기 언해문과 유사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15세기 언해문의 독특한 현상의 기원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석독구결법이 한문 원문을 완전한 한국어 문장에 가깝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문과 한국어 문장의 차이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15세기 언해문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석독구결 자료는 한글 창제 전 시기 국어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결정적인 자료이다. 또한 석독구결의 차자 방법이나 용법이 향찰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석독구결 자료는 향가의 정확한 해독을 가능하게 해 주기도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석독구결 자료로는 ≪釋華嚴教分記≫(10세기 중엽), ≪大方廣佛華嚴經疏≫ 권35(12세기 초), ≪大方廣佛華嚴經≫ 권14(12세기 중반~말엽), ≪合部金光明經≫ 권3(13세기 중엽 이후), ≪舊譯仁王經≫ 권上(13세기 중엽 이후), ≪瑜伽師地論≫ 권20(13세기 말) 등 6종이 알려져 있다. 이들 자료들은 표기의 정밀성 및 생략 표기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일 뿐, 구결법, 구결자 및 그 용법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핵심어: 차자표기법, 석독구결, 석화엄교분기, 대방광불화엄경소, 대방광불화엄경, (합부)금광명경, 구역인왕경, 유가사지론

1. 서론

한 동안 동북 아시아의 유일한 문자는 한자였다. 따라서 중국 주변의 민족들은 모두 입으로는 자기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도, 글로는 자기 언어 구조와 차이가 있는 한문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주변의 여러 민족들은 한자를 이용하여 자민족의 언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고안했는가 하면, 더 나아가 자민족의 문자를 창제하기도 하였다. 우리 민족 역시 말과 글의 괴리에 따른 불편함에서 예외일 수 없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15세기 중엽 한글을 창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글 창제 전에 우리의 말을 표기한 방법은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른바 '차자표기법'이었다. 따라서 차자표기 자료들은 한글 창제 전의 국어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국어사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양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글 창제 전시기 국어의 문법 요소를 알 수 있게

---

* 이 글은 2003년 7월24~25일에 일본 토야마(富山)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日韓 漢字·漢文 受容에 關한 國際學術會議'에서 "韓國 釋讀口訣의 綜合的 考察"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던 것을 제목을 바꾸고 일부 내용을 고친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은 원래의 발표문과 큰 차이가 없다. 애초 이 글의 목적이 일본 학자들에게 석독구결과 그 자료의 성격을 개괄하여 소개하는 데 있었던 만큼, 내용의 대부분이 우리 학계에서 상식적인 것이거나 기왕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 글이 여기에 실리게 된 것은, 오로지 새로이 구결을 연구하고자 하는 후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이 필요하다는 여러 선생님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 한남대학교 교수

해 주는 자료는 더더욱 제한되어 있다. 몇몇 이두 자료와 향가 25수의 향찰 자료가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국어의 문법적 사실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이 시기는 국어 문법사의 암흑기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 준 사건이 1970년대 초의 ≪舊譯仁王經≫의 발견이다. ≪舊譯仁王經≫의 발견은, 한문의 원문을 국어의 어순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원문의 한자를 석독하는 석독구결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지금까지 미지의 자료로 남아 있던 석독구결 자료들이 속속 학계에 소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주로 국어의 문법부를 표기하는 석독구결 자료가 확보됨으로써 한글 창제 전시기 국어의 문법적 사실을 연구할 수 있는 훌륭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후 이러한 석독구결 자료를 통해서 한글 창제 전, 정확하게 말하면 고대국어의 문법적 사실의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으며, 현재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석독구결 및 그 자료에 대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2. 차자표기법 체계와 석독구결

국어 차자표기의 첫 대상이 된 것은 국어의 고유명사였다. 명사 가운데 인명과 지명, 관직명 등은 당시의 공문서 기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서 한자로는 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유명사를 표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주변의 다른 외국어를 표기할 때 사용되던 假借의 방법을 원용하여 고유명사를 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산스크리트어 'buddha'를 음역하여 '佛陀'로,

의역하여 '覺'으로 표기하는 가차의 방법을 받아들여, 한자의 음과 훈으로 우리의 고유명사를 표기하는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安秉禧 1992:270). 고유명사 표기의 예는, 5세기 초의 고구려 廣開土大王陵碑銘, 6세기 전반의 백제 武寧王陵 誌石과 신라 眞興王巡狩碑銘 등의 금석문 자료에서부터 발견된다. '鄒牟, 儒留, 牟盧城, 斯麻王, 居柒夫, 喙部, 奈麻'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예는 물론 '厭髑 或作異次 或云異處, 買忽一云水城' 등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술한 역사서의 기록을 통해서 고유명사 표기법이 삼국시대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유명사를 표기하는 방법은 이후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명사의 표기에까지 이용되었다. 이는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鄕藥救急方≫의 약재의 鄕名 표기에 나타난 '月乙老, 所邑朽斤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표기는 조선 후기의 의학서 등에서도 나타난다.

고유명사 표기에서 더 나아가 표기 대상을 국어의 문장까지 확대시킨 차자표기가 '吏讀'이다[1]. 초기의 이두문은 한문의 문장 구조를 국어의 문장 구조로 바꾸는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壬申誓記石銘을 통해 확인된다. 이후 삼국시대의 금석문 자료를 통해서 문장 구조, 즉 어순을 바꿀 뿐만 아니라 '以, 節, 之'등의 助字를 이용해 이들 조자의 의미와 유사한 국어의 형태부를 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통일신라 시대인 8세기 중엽에는 이전의 조자는 물론, '在, 飛' 등과 같은 實字의 음과 훈을 빌려 이들 글자 원래의 의미와는 무관한 국어의 형태부를 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차자표기법이 바로 '이두'이다.[2] 이렇게 8세기 중엽에 완성된 이두는 <永泰二年銘石造毘

1) '吏讀'는 원래 '吏文의 吐'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차자표기 전반을 지칭하기도 한다(安秉禧 1992:279-284). 우리는 여기에서 '이두'라는 용어를 "이두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을 표기하는 차자표기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완성된 이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통일신라의 <華嚴經寫經造成記>(755年)에는 '爲內'(호), '令只者'(시긴) 등과 같이 국어의 동사

盧遮那佛造像記>(766년), <新羅皷興寺鐘>(856년), <鳴鳳山慈寂禪師碑陰>(941년),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1031년) 등에서 보듯이 고려초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나타난다. 다만 고려 중엽부터는 그 이전에 쓰이던 이두 '之'(-다)가 더 이상 쓰이지 않고 대신 '齊'(-져)가 쓰였다든지,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를 표기한 '賜'(-시-)가 더 이상 쓰이지 않았으며, 한문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두문의 어휘부를 훈독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보이기도 한다. 이 차자표기법은 주로 행정 실무층에서 한글 창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19세기말 갑오경장까지 계속되었다. 이두는 국어 문장 가운데 실질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어휘부는 원래 의미를 유지한 한자 및 한문으로,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부는 차자로 표기한 것이므로, 국어를 부분적으로 표기한 차자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고유명사 표기법과 이두 표기의 원리를 확대하고 종합한 차자표기가 '鄕札'이다. 이두문에서 한자로 표시되던 국어의 어휘부는 고유명사 표기 방법을 더욱 확대 적용하여 표기하고 문법부는 이두 표기 방법과 같이 차자로 표기하면, 국어의 문장 전체를 차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방식의 차자표기법이 향가 표기에 나타나는 향찰이다. 여기에서 眞聖女王 2년(888)에 향가집 ≪三代目≫이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9세기말 이전에 향찰 표기법이 완성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향찰이 국어 문장 전체를 표기한 가장 완성된 차자표기법임에도 불구하고 향가 표기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의외의 현상이다. 이 때문에 향가의 발전과 함께 그 가사를 표기하기 위한 표기법으로 발전한 것이 향찰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유명사 표기, 이두, 향찰 등과 차자의 원리나 방법은 유사하면서도 표기의 목적이 다른 국어 차자표기법도 존재하는데,

---

어간과 어미가 통합한 활용형 전체를 표기한 경우도 발견된다.

'口訣'이 바로 그것이다.[3] 앞서 언급한 차자표기법들이 모두 국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인 데 비해, 구결은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국어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구결은 불경 등의 한문 원문 중간에 전후의 문맥이나 문법적 관계가 드러나도록 국어의 문법 요소 등을 차자로 표기해 넣는 것으로, 구결을 직접 기입할 때의 편의를 위해 구결자는 한자의 楷書나 草書의 일부 획을 생략한 略體字로 쓰는 일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구결을 직접 기입한 자료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말에 걸쳐 두루 발견되는데, 조선 중기 이후에는 한문 원문에 차자 구결을 정자로 달아 놓은 구결문 전체를 판각하여 간행한 경우도 있다. 특히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차자구결 대신 한글로 구결을 달기도 하였다. 15세기 이후의 언해문은 바로 이렇게 한문 원문에 한글로 구결을 단 구결문을 바탕으로 국어로 옮긴 문장이다.

한 동안 구결이라고 하면, 한문 원문을 읽어 가다가 원문 사이에 기입된 구결이 있을 때 이를 읽고 다음 한문 원문을 순차적으로 읽어 가는 차자표기법으로 알려져 왔다. 이를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구결이라 하여 '順讀口訣', 또는 한문 원문을 한자의 음으로만 읽는다 하여 '音讀口訣'이라고 부른다(以下에서는 '音讀口訣'로 부름). 그러나 ≪舊譯仁王經≫이 학계에 소개되면서 음독구결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또 다른 구결이 존재했음이 밝혀졌다. 음독구결은 일반적으로 한문 원문의 우측에 구결을 기입해 넣는 데 비해, ≪舊譯仁王經≫에는 한문 원문의 좌측에도 구결이 기입되어 있는가 하면 '逆讀點'도 찍혀 있다. 이 구결의 독법을 연구한 결과, 구결을 따라 읽은 구결문은 국어의 어순이 될 뿐만 아니라, 한문 원문의 한자를 음이 아닌 釋(또는 訓)으로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구결이 바로 '釋讀口訣'이다.

---

3) '구결'은 우리의 고유어 '입겾, 입겿'을 차자표기한 것으로, '口授傳訣'을 뜻하는 한자어 '口訣'과는 다른 것이다. '구결'의 개념에 대해서는 安秉禧(1977: 11-21, 1992:281-282)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석독구결 역시 한문 원문을 국어로 이해하기 위한 차자표기법이라는 점에서 음독구결과 그 표기 목적이 같다. 그러나 '汝此肉身ㅣ 爲同金剛ㅅ 常住不朽ㅅ 爲復變壞ㅅ 〈楞嚴經〉' 등에서 보듯이 음독구결은 한문 원문의 어순을 완전히 국어로 풀어 낸 것이 아니라 그 한문을 국어로 옮겼을 때의 문장 성분, 문법적 관계, 문장 유형 등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데 비해, 석독구결은 한문 원문을 완전한 국어 문장에 가깝게 풀 뿐만 아니라 한문 원문의 한자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도 표시한다. 따라서 한문 원문을 국어로 이해하는 정도가 음독구결은 부분적인데 비해, 석독구결은 전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4]

이 두 구결이 사용된 자료 가운데 석독구결 자료가 음독구결 자료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데, 이를 통해 구결의 발전에 있어서의 석독구결과 음독구결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즉 한문에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한문을 완전히 국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석독구결을 사용하다가, 한문에 익숙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간결한 음독구결로 발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차자표기법의 차자 원리나 방법은 모두 공통성이 있다. 더욱이 이두, 향찰, 구결 등에서 사용된 차자의 자형이나 용법이 유사한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특히 석독구결과 향찰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차자표기법으로 판단된다. 다른 차자표기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차자가 향찰과 석독구결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차자의 용법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향찰 표기에 나오는 '遣只賜'(고기시)가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그대로 'ㅁㅏㅎ'(고기시)로 나타난다. 또한 한글 자료는 물론 다른

4) 최근 발견되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符號口訣 역시 한문을 완전한 국어에 가깝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석독구결과 동일한 목적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호구결은 개념상 차자표기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의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차자표기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어미구조체 '-읎다'가 향찰에서 '-音叱如'로, 석독구결 자료에서 '-ㅎㄴㅣ'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석독구결의 '-ㅎㄴㅣ'를 정자로 바꾸면 향찰의 '-音叱如'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석독구결의 구결자를 정자로 바꾸었을 경우 향찰의 차자와 일치하는 경우는 이 외에도 많이 발견된다. 이렇게 볼 때 향찰과 석독구결이 별개의 차자표기법이 아니라 같은 계통의 차자표기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5] 이와 함께 구결법이 매우 강한 보수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석독구결 자료는 고대국어를 반영하고 있는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어 차자표기법 체계와 그 안에서 석독구결이 차지하는 위치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기 대상	표기 목적		차자표기법
고유명사 (인명, 지명, 관직명)	표현		고유명사 표기법
문장	표현	부분적	이두
		전면적	향찰
	이해	부분적	음독구결
		전면적	석독구결

3. 석독구결법과 석독구결문의 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독구결법은 한문 원문을 완벽한 국어 문장에 가깝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실제 석독구결 자료의 예

5) 이러한 유사성은, 고려어가 신라어의 맥을 잇고 있을 것이라는 국어학계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朴鎭浩 2001).

문을 통해 석독구결법을 살펴보기로 하자.[6]

(1) a. 信行具足復有五道一切衆生復有他方不可量衆 <舊譯仁王經 上:2, 1-2行>

b. 信行乙具足ᄋᆞᆫᄃᆞᆫ復ᄋᆞᄀᆞ有ᄒᆞᄂᆞᆫ五道ᄅᆞ一切衆生ㅣ.復ᄋᆞᄀᆞ有ᄒᆞᄂᆞᆫ他方ᄅᆞ不ᄆᆞᆺ ㅣᄒᆞᄅᆞ可ᄒᆞᆫᄀᆞ.量ᄂᆞᄉᆞ.衆

c. 信行乙 具足ᄋᆞᆫᄃᆞᆫ 復ᄋᆞᄀᆞ 五道ᄅᆞ 一切衆生ㅣ. 有ᄒᆞᄂᆞᆫ 復ᄋᆞᄀᆞ 他方ᄅᆞ 量ᄂᆞᄉᆞ. 可ᄒᆞᆫᄀᆞ. 不ᄆᆞᆺㅣᄒᆞᄅᆞ 衆 有ᄒᆞᄂᆞᆫ

d. 信行을 具足ᄒᆞ시며 ᄯᅩᄒᆞᆫ 五道ㅅ 一切衆生이 잇겨며 ᄯᅩᄒᆞᆫ 他方ㅅ 量홈 짓ᄒᆞᆫ 안디이ᄂᆞᆫ 물 잇겨며

(1a)는 한문 원문을 보인 것이고, (1b)는 여기에 석독구결을 달아 국어 문장으로 푼 것으로 원래의 세로쓰기를 가로쓰기로 옮긴 것이다. 여기의 위첨자는 세로쓰기로 된 원문의 우측에, 아래첨자는 원문의 좌측에 기입된 구결을 표시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 보이는 구결자들은 대부분 약체자로서 각각의 원자를 보이면, '乙'(을)은 '乙', 'ᄋᆞᆫᄃᆞᆫ'(ᄒᆞ시며)는 '爲示旀', 'ᄋᆞᄀᆞ'(ᄒᆞᆫ)은 '爲隱', 'ᄅᆞ'(ㅅ)은 '叱', 'ㅣ'(이)는 '是', 'ᄒᆞᄂᆞᆫ'(ㅅ겨며)는 '叱在旀', 'ᄂᆞᄉᆞ'(홈)은 '乎音', 'ᄆᆞᆺㅣᄒᆞᄅᆞ'(디이ᄂᆞᆫ ㅅ)은 '知是飛叱' 등과 같다.

(1a)에 대해서 (1b)와 같이 구결을 기입해 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한문 원문의 각 내용이 국어 문장에서 차지하는 문법적 기능이 드러나도록 필요한 구결을 원문 우측에 달아가면서 원문을 읽어 나간다(信行乙 具足ᄋᆞᆫᄃᆞᆫ 復ᄋᆞᄀᆞ). 읽어가다가 한문 원문에, 국어 문장의 어순으로는 뒤에 위치하는 서술어(有)가 오면 일단 유보하고 순차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필요한 구결을 달아가며 읽는다(五道ᄅᆞ 一切衆

6) 석독구결의 구결법 및 독법은 沈在箕(1997), 朴鎭浩(2001) 등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生ㅐ). 여기에서 국어 어순 상 유보해 두었던 서술어로 되돌아가 읽어야 할 부분에는 역독점을 찍어 이를 표시한 뒤(一切衆生ㅐ.), 유보해 두었던 서술어로 되돌아가 원문의 좌측에 필요한 구결을 기입한다. 다음에는 역독점을 찍었던 바로 다음 부분부터 앞의 과정과 같이 구결을 달아 나간다. 이때 '不可'와 같이 순차적으로 우측에 구결을 달아가며 읽을 때 유보하는 서술어가 2자 이상이면서 원문의 순서와 국어 어순이 다를 경우에는, 좌측에도 역독점을 찍은 뒤(可ᄒᆞᆫᄀᆞ.) 다시 그 앞의 서술어로 올라가 필요한 구결을 좌측에 기입한다(不ᄋᆞᆨㅐᄇᆞᆮᄒᆞ). 이때 '復ᄂᆞᆫᄀᆞ(또ᄒᆞᆫ), 有ᄒᆞᄂᆞᆫᄀᆞ(잇겨며), 可ᄒᆞᆫᄀᆞ(짓ᄒᆞᆫ)' 등과 같이 한문 원문 가운데 국어로 훈독해야 할 요소에는 훈독한 결과가 드러나도록 구결을 기입한다.[7] 이렇게 하여 구결을 단 결과가 (1b)인 것이다. (1c)는 이를 풀어 읽은 구결문이고, 이를 15세기 한글 표기로 옮겨 쓴 것이 (1d)이다.

(1d)를 15세기 이후 언해문의 문장들과 비교해 볼 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석독구결법은 한문 원문을 거의 완전한 국어의 문장에 가깝게 석독구결문으로 풀어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석독구결문은 몇 가지 점에서 15세기 언해문과의 공통점을 보인다.

우선 15세기 언해문은 종결어미에 의해 끊어진 여러 문장이 아니라, 연결어미에 의해 길게 이어진 문장이 하나의 텍스트를 이룬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석독구결문 역시 연결어미적인 요소에 의해 길게 이어진 문장이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

7) 특히 '有ᄒᆞᄂᆞᆫᄀᆞ, 可ᄒᆞᆫᄀᆞ' 등의 'ᄒᆞ'은 원문의 '有, 可' 등을 읽었을 때, 그 결과가 말음 'ㅅ'을 지녔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이른바 '末音添記字'이다. 이를 통해 '有ᄒᆞᄂᆞᆫᄀᆞ, 可ᄒᆞᆫᄀᆞ' 등이 음독되는 것이 아니라 '잇겨며, 짓ᄒᆞᆫ'과 같이 읽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a. 一者 (於一切 衆生) 意欲 煩惱行ᅀ ᄉᆞᄉᆞᆫ 心 悉ᄒᆞ 通達ᄒᆞᆫᄃᆞ 二者 量 無ᄒᆞᄀᆞ … 曉了ᄒᆞᆫᄃᆞ 三者 … 自在ᄒᆞᄒᆞᆫᄃᆞ 四者 … 願求ᄒᆞᆫᄃᆞ 五者 … 願求ᄒᆞᆫᄃᆞ ᄒᆞᄆᆞ矣ᄂᆞᄀᆞᄅᆡᄂᆡ <金光明經 3:4, 5-10行>

b. 作樂ᄉᆞᄆᆞᄀᆞ 亦ᄒᆞᄀᆞ 然ᄒᆞᄒᆞᄂᆞᆫ下 亦ᄒᆞᄀᆞ 復ᄅᆞ 共ᄒᆞ 量 無ᄒᆞᄀᆞ 音樂ᄋᆞ 作ᄒᆞᄒᆞ 如來ᄋᆞ 覺寤ᄒᆞᄅᆡ白ᄅᆞᄒᆞᆫᄀᆞ 佛ᄀᆞ … 知ᄂᆞᆫᄃᆞ 衆生ᄅᆞ 根ᄋᆞ 得ᄂᆞᄒᆞᄀᆞ 卽ᄅᆞ 定ᄋᆞ 從ᄒᆞ 起ᄒᆞᄒᆞᄂᆞᆫ下 方ᄒᆞ 蓮花師子座上ᄒᆞᄒᆞ 坐ᄒᆞᄒᆞ白ᄅᆞᄀᆞᄆᆞ 金剛山王 [如]ᄅᆡᄒᆞᄒᆞᄂᆞᆫᄀᆞ 大衆ᄀᆞ 歡喜ᄒᆞᄒᆞ 各ᄅᆞ各ᄅᆞᄉᆞ 量 無ᄒᆞᄀᆞ 神通ᄋᆞ 現ᄅᆞᄇᆞᄒᆞᄂᆞᆫᄀᆞᄂᆞ <舊譯仁王經 上:3, 12-15行>

(2a)는 이 바로 앞의 '何者 爲五'라는 의문문의 대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연결어미 '-ᄃᆞ'(-며)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이 텍스트를 이루고 있다. (2a)에서 보듯이 이렇게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는 '-ᄃᆞ' 뒤에는 앞의 서술어들을 아우르는 용언 'ᄒᆞ-'가 와서 텍스트를 완결한다. (2b)에서는 연결어미적 용법의 동명사 어미 '-ᄀᆞ'(-ㄴ)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이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고 있다. 이때의 '-ᄀᆞ'은 15세기 언해문의 '-니'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2b)는, 15세기 언해문에서 화석으로 남아 있는 다음과 같은 '-ㄴ'의 용법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3) a. 이 世界예셔 뎌 싸홀 다 보미 닐온 두려이 現ᄒᆞ샤미라 <法華經諺解 1:62b>

b. 經에 니ᄅᆞ샨 父母 나혼 누ᄂᆞ로 三千界ᄅᆞᆯ 다 보리라 ᄒᆞ시니 <法華經諺解 6:26b>

c. 阿難아 ᄯᅩ 너의 ᄇᆞᆯᄀᆞᆫ 귀와 소리왜 緣이 ᄃᆞ외야 耳識ᄋᆞᆯ 내ᄂᆞ다 ᄒᆞᄂᆞ니 <楞嚴經諺解 3:39a>

15세기 국어에서 어미 '-ㄴ'은 대부분 관형사형 어미로 사용되었다. '-ㄴ'이 관형사형 어미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드물게 발견되는 명사형 어미로 사용된 경우(그딋 혼 조초 ᄒᆞ야 <釋譜詳節6:8b>, 虞芮 質成ᄒᆞᄂᆞ로 方國이 해 모ᄃᆞ나 <龍飛御天歌 11章>), 그리고 (3)과 같이 연결어미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 곧 (3)의 '닐온, 니ᄅᆞ샨, 불콘' 등은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라, 연결어미로서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밝히기를"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여기의 '-ㄴ'이 연결어미적으로 사용되었음은 특히 (3a, b)의 '닐온, 니ᄅᆞ샨' 대신에 '닐오ᄃᆡ, 니ᄅᆞ샤ᄃᆡ' 등이 오기도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8]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들은 석독구결문이 15세기 이후 언해문과 유사할 만큼 거의 완전한 국어 문장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석독구결문 가운데에는 완전한 국어 문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4) a. 若ㄷ 有ナㅣ 衆生ㅣ 壽ㅎ 量 無ㄱㅣ <華嚴經 14:18, 20行>
b. 或ㄲ 有ナㅣ 刹土ㅣ 佛矣 無ㅎㅁㄱㅣ矣ㅓ <華嚴經 14:14, 15行>
c. 時十 或ㄲ 有ナㅣ 人ㅣ 來ㅅㅋㅈ 是ㅣ 言乙 作ㅅナ尸丁 <華嚴經疏 35:10, 7-8行>

(4)는 '有'가 서술어로 오는 소위 존재구문의 예로서, 앞서 살펴본 (1)과 동일한 성격의 문장이다. 그런데 (1)에서는 국어 문장 구조로 풀어 서술어 '有'를, 주어 '五道ㄷ 一切衆生ㅣ.' 다음에 읽어 하나의 문장으로 푼 데 비해, (4)에서는 서술어 '有' 뒤에 종결형을 두어 하나의 문장으로 종결한 뒤 그 주어 명사구에는 '-ㅣ/ㅓ'(-여)를 붙여 또 하나의 문장으로 종결하고 있다.[9] 15세기의 언해문에서 이러한 존재구문이 한

8) 이러한 해석을 포함하여 15세기의 '닐온, 니ᄅᆞ샤ᄃᆡ' 등이 이끄는 화법구문에 대해서는 李賢熙(1994:341-344, 356-360)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문장으로 나타남은 물론이다. 언해문과 석독구결 사이 시기의 자료인 음독구결 자료에서도 이러한 존재구문에는 서술어 '有'와 주어부 전체의 뒤에 서술어 '有'에 붙일 구결을 한 번만 붙이는 일이 일반적이다. 역시 한 문장으로 풀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4)와 같은 문장은,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이라면 하나의 문장에서 주어-서술어 관계로 표시되었을 각 부분이 별개의 두 문장으로 분리되어 나타난 문장임을 알 수 있다.[10]

이러한 현상이 존재구문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5) a. 善男子ㅣ 又 五法 有ㅌㄴㅣ 菩薩摩訶薩ㅣ 般若波羅蜜ㄴ 成就ㅅㅎㅗ <金光明經 3:3, 22-23行>

b. 菩薩ㄱ 自ㅋㅁ 念ㅅㄴㅏㄹㄷ 我ㄱ 無始ㅁㅂ 已來ㅇㄱㄹㅁ 飢餓乙 以ㅣㄱㅅㅁ 故ㅈ 身乙 喪ㅣㅇㄱㄹㅁ 數ㅋ 無ㅌㅣ ㅅㅣㅇㄱㅣㅅ 曾ㅂㅎㅁ 得ㅣㅎ 毫末許ㅏ 如ㅈㅅㅌㅁ 衆生乙 饒益ㅅㅣ 而ㅁ 護ㅇㅌㅌ 善利乙 有ㅐㄹ 未ㅣㅅㄱㅣㅣㅣㅌㅣ <華嚴經疏 35:10, 8-10行>

(5a)는 존재구문이기는 하지만, 둘째 문장 '菩薩摩訶薩ㅣ 般若波羅蜜ㄴ 成就ㅅㅎㅗ'는 '有ㅌㄴㅣ'의 주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4)의 문장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有'의 주어 '五法'의 보문으로서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이라면 '五法'의 관형사절로 나타났을 내용이다. (5b)의 둘째

9) (4c)의 주어부 '人ㅣ 來ㅅㅣㅎ 是ㅣ 言乙 作ㅅㄴㅏㄹㄷ'의 끝 '-ㄹㄷ'는 동명사 어미 '-ㄹㄷ'과 의존명사 'ㄷ' 그리고 종결의 조사 '-여'가 통합한 것이므로 이는 기본적으로 명사구이다. 그러나 또 한편 명사구 내부에서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므로 절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명사구이면서 명사절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15세기 이후의 언해문에서는 이러한 구문이 'NP1이 NP2'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났다.

10) 졸저(2002:4)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중시하여 (4)와 같은 현상을 '구결문 분리 현상'으로 부른 바 있다.

문장 '我ㄱ 無始ᄆᆞᄒᆞ 已來ᄒᆞᄀᆞᆷ … 善利ㄹ 有ᅀᅡᄑᆞ 未ᄇᆡᄂᆞᄀᆞᄇᆡᄒᆞᆮᄒᆡ'는 내용 상 첫째 문장의 서술어 '念ᄉᆞᆫ-'의 목적어이다. (5)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 별개의 문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15세기 언해문에서라면 이들 문장의 전후 두 문장은 연결어미 '-니, -오디' 등이 통합한 접속문의 선·후행절로 나타나 각 성분간의 문법적 관계가 파악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4), (5)와 같은 문장은, 한문이 국어 문장 구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석독구결이 국어의 문법 요소를 완벽하게 표기하기는 어려운 차자표기법의 하나였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문장들이 존재하는 이상 석독구결문이 15세기의 언해문과 같이 한문을 완벽한 국어 문장으로 푼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석독구결법은 한문을 완벽한 국어 문장에 가깝게 풀어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문과 국어 문장의 구조적 차이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차자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석독구결 자료와 구결자

현재까지 알려진 석독구결 자료는 ≪釋華嚴教分記≫ 권3, ≪大方廣佛華嚴經疏≫ 권35, ≪大方廣佛華嚴經≫ 권14, ≪(合部)金光明經≫ 권3, ≪舊譯仁王經≫ 권上, ≪瑜伽師地論≫ 권20 등 6종으로 고려 시대인 10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간행된 것이다. 이들 자료와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구결자 및 그 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석독구결 자료에서 발견되는 구결자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석독구결 자료에서 발견되는 구결자의 목록과 빈도를 보이면 다음 (6)과 같다.

(6)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구결자 목록 및 빈도[11]

구결자	원자	독음	빈도	화소	화엄	금광	구인	유가
𠂉	去	거	175	26	92	22	8	27
𠂇	在	겨	481	152	135	73	46	75
口	古	고	295	89	47	39	42	78
人	果	과/와	290	47	15	27	24	177
尒	尒	곰	358	51	164	0	20	123
尔	尒	곰	55	0	0	55	0	0
𨒫	這	곧	8	0	4	0	4	0
艮	艮	곤/ㄱ	7	0	0	1	0	6
八	只	ㄱ/기	385	77	76	31	43	158
乃	乃	나	39	8	1	7	2	21
又	奴	노	6	4	0	2	0	0
乂	奴	노	6	1	4	0	1	0
卜	臥	누	85	5	18	33	19	10
匕	尼	니	5	1	4	0	0	0
匕	飛	닉	465	19	340	26	50	30
斤	斤	늘/늘	32	0	1	0	0	31
𠃌	隱	ㄴ/은/온/는/ㄴ	2840	472	701	358	309	1000
丨	多	다	700	136	134	85	72	273
支	支	다/히	299	49	113	29	0	108
大	大	대	1	0	0	1	0	0
丁	丁	뎌/뎡	141	32	12	9	3	85
刀	刀	도	106	30	29	26	18	3
斗	斗	두	93	9	5	1	0	78
土	地	디	1	0	0	1	0	0
矢	知	디	225	44	60	37	24	60
の	入	드/ᄃ	58	0	16	0	42	0
入	入	드/ᄃ	669	108	168	102	0	291
冬	冬	돌	67	3	3	29	3	29
ム	矣	듸	136	23	46	30	12	25
矣	矣	듸	1	0	1	0	0	0

11) 이 표는, 朴鎭浩(2001)의 부록으로 제시한 표에서 음독구결에서만 나타나는 구결자들을 제거하고, 몇몇 구결자의 원자 및 독음을 수정·보충한 것이다.

구결자	원자	독음	빈도	화소	화엄	금광	구인	유가
丶	羅	라	56	56	0	0	0	0
丷	羅	라	46	6	11	10	0	19
罒	羅	라	78	9	10	19	13	27
呂	呂	려/리	4	0	0	4	0	0
灬	以	로	9	0	0	0	9	0
灬	以	로	432	0	57	95	36	244
灬	以	로	70	70	0	0	0	0
令	令	리	393	94	91	35	33	140
利	利	리	319	0	124	71	18	106
利	利	리	71	71	0	0	0	0
尸	尸	ㄹ/을/올/를/롤	1229	259	343	226	49	352
し	乙	ㄹ/을/올/를/롤	2283	307	718	329	129	800
𠂉	𠂉	마	27	15	4	4	2	2
尒	弥	며	992	170	242	189	98	293
毛	毛	모	3	0	0	0	3	0
勿	勿	믈	5	5	0	0	0	0
亡/立	音	ㅁ	217	42	48	39	18	70
巴	邑	ㅂ	2	0	0	0	2	0
火	火	붓/ㅂ	10	1	5	3	1	0
邑	邑	ㅂ?	2	1	0	0	0	1
氵	沙	사/샤	280	44	43	15	28	150
三	三	삼	14	14	0	0	0	0
立	立	셔	147	7	140	0	0	0
彳	彼/徐	셔/뎌	14	3	5	4	2	0
一	三?/一?	삼?/일?	5	0	0	2	0	3
二	示	시	199	0	4	76	115	4
易	賜	시	77	44	32	0	0	1
白	白	숣	95	4	28	31	23	9
七	叱	ㅅ	1590	338	384	166	217	485
𠂇	良	아/애	1797	265	518	266	139	609
与	与	?	1	1	0	0	0	0
亠	亦	여	443	0	5	191	0	247
丶	亦	여	571	247	202	0	122	0
乀	良	아	3	0	0	0	3	0
乛	乎	오	57	0	0	0	57	0

구결자	원자	독음	빈도	화소	화엄	금광	구인	유가
五	五	오	1	1	0	0	0	0
于	于	우	3	0	0	2	1	0
衤	衣	의/이	329	76	78	33	33	109
𠃌	是	이	1560	328	317	286	187	442
弋	弋	익	2	2	0	0	0	0
卬	卬	인?/곧?	1	0	1	0	0	0
成	成	일	1	0	0	0	0	1
𥫱	第	뎨	1	0	0	0	1	0
𠫓	齊	져/졔	382	30	45	70	51	186
𠂤	止	텨	25	24	0	0	0	1
之	之	의?/예?	9	2	1	1	4	1
造	造	짛?	1	0	1	0	0	0
下	下	하	157	21	1	35	17	83
丿	乎	호/오	1268	195	178	243	78	574
𠂉	乎	호/오	343	92	1	0	137	113
𠂉	兮	히	67	1	4	6	5	51
丶	爲	ᄒᆞ	3220	489	780	486	302	1163
十	中	긔/히	951	119	259	96	82	395
中	中	긔/히	1	0	0	1	0	0
子	子?/孫?	?	5	1	0	0	3	1
甲	甲	?	1	1	0	0	0	0

이 표에서 독음에 '?'로 표시된 구결자들은 용례가 적어 그 구결자의 기능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구결자들이다. 이 목록에서 '尒, 尒'(곰), '又, 乂'(노), '𠮛, 入'(드/ᄃᆞ), '灬, 灬, 灬'(로), '冫, 𠂉'(아) 등은 서로 다른 구결자라기보다는 동일 구결자가 다른 필체로 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표의 '乚'(을) 또한 ≪舊譯仁王經≫ 등에서는 그 필체가 '乙'에 가깝게 보이는 경우도 많다. 또한 '厶, 矣'(ᄃᆡ), '丶, 丷, 灬'(라), '干, 未'(리), '𠂉, 丷'(여), '丿, 𠂉'(호), '十, 中'(긔/히) 등은 동일 원자의 생획 부분이 다르거나 원자의 해서나 초서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구결자를 만드느냐에 따라 구결자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밖에 'ㄱ, ㅗ'(도/두), 'ㄴ, ㅎ'(시) 등은, 같은 국어 문법요소를 표시하는 구결자를 각각 다른 원자에서 만든 것이다. 한편 구결자 'ㅌ'(디)는 '左邊ㅅ 右邊ㅅㅅㅎㅅㅅ 地(獄)ㅎㅅ 墮ㅅㅌㅅ 應ㄷㅅㅈㅣㄱ <金光明經 3:6, 13-14行>'에 한 번 나타나는 구결자인데 그 자체가 'ㄷ'(ㅅ)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석독구결자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각 석독구결 자료와 그 자료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구결자 및 용법 등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12]

(1) 釋華嚴教分記

이 책의 원서명은 ≪釋華嚴教分記圓通鈔≫로서 이를 더 줄여 ≪釋教分記≫라고도 부른다. 이는 法藏의 ≪一乘教分記≫(흔히 '五教章'이라 함)에 대한 均如(923~973)의 주석과 설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체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一乘教分記≫ 가운데 <建立一乘一>부터 <施設異相八>까지의 내용이 권1, 2에, <所詮差別九>의 내용이 卷3~5에, <義理分齊十>이 권5~10에 나뉘어 실려 있다. 균여의 저술 가운데 대부분이 ≪華嚴經≫에 대하여 균여가 方言으로 행한 議義를 제자가 기록한 것인데, 균여 사후 300년 후에 天其와 그의 제자들이 사본으로 전하던 균여의 방언본 저술을 한문본으로 만들어 간행한 것이 현전한다. 天其와 그의 제자들이 균여의 방언본을 한문본으로 바꿀 때, 바뀌지 않은 부분이 이 책의 권3 29장에 짧게 남아 있는데, 이것이 석독구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석독구결 자료가 된다. 권3은 <所詮差別九>의 내용인데, 권1 끝에 있는 天其의 기록에 의하면 균여의 <所詮差別九>

12) 석독구결 자료의 서지적 사실에 대해서는 南權熙(1997b, 2002:574-686)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있으며, 각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구결자 및 특징적 사실에 대해서는 南豊鉉(1998, 1999b), 李丞宰(1993), 沈在箕·李丞宰(1998), 南星祐·鄭在永(1998), 鄭在永(1998) 등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이 글의 대부분은 이들 선행 연구에 크게 힘입은 것이다.

강의가 960년(顯德7, 고려 광종11)에 있었고 이를 惠藏法師가 기록하여 開太寺에 수장했다고 하므로 여기의 석독구결은 10세기 중엽의 것으로 추정된다.[13]

석독구결문이 포함된 전후의 내용까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答彼經文義 欲現隨機設教不同 非是欲明佛性多種也 此義中若破經文者) 或 有如 佛性隱 闡提人隱 有豆亦 善根人 無如好尸丁 或 有如 佛性隱 善根人隱 有豆亦 闡提人 無如好尸丁 等云也[(대답하기를 그 경문의 뜻은 機에 따라 설교가 다름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지 불성이 여러 종류임을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뜻으로 경문을 이해한다면,) "혹 있다 불성은(혹 불성이 있다고 함은) 闡提人은 있지만 善根人은 없다 함이며, 혹 있다 불성은(혹 불성이 있다고 함은) 善根人은 있지만 闡提人은 없다 함이다." 등을 말한다.]

여기의 구결자는 간행을 위해 정자로 바꾼 것으로서, '豆'(두), '好'(호)는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구결자이다. 특히 구결토 '-豆亦'(-두여)는 선행절 내용을 긍정하고 후행절 내용을 부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독특한 것으로, 15세기 국어의 '-디비'와 유사하다.

(2) 大方廣佛華嚴經疏 권35

이는 당의 淸凉大師 澄觀이 찬술한 80화엄경의 注疏를 송의 淨源法師가 집록한 책으로 줄여서 ≪華嚴經疏≫라고도 부른다. 대각국사 義天(1055~1101)이 중국 체류 중에 이 책을 기증받고 송에서 판각하

13) 이상의 내용은 安秉禧(1992)를 따른 것이다.

여 1087년(고려 선종4)에 수입한 '注華嚴經板'으로 간행한 책으로 전 120권이다. 이 가운데 대구 개인 소장의 제35권에 역독점을 포함한 석독구결이 매우 정교하고 정성스럽게 기입되어 있다. 권35는 <十無盡藏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華嚴經≫ 중에서는 권21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 책은 11세기 말~12세기 초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기입된 구결도 다른 석독구결에 비해 고형을 유지하고 있어 간행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기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결의 정확성이나 구결자체의 해정함으로 미루어 이 책은 해석의 규범에 해당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자료에 나타나는 석독구결의 특징적인 사실로는 우선, 역독점이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자료에서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有ㅌㅋ幾ㅌㅇㅌ世界.壞ㅅ가(幾ㅌㅇㅌ 世界. 有ㅌㅋ 壞ㅅ가) <8:6行>, 心ㅋ十無ㅛㅅㄴ가悔恨(心ㅋ十 悔恨. 無ㅛㅅㄴ가) <12:18行>' 등과 같이 원문에 아무런 구결이 달리지 않은 부분에만 역독점이 찍히는 경향이 있다. 역독점과는 달리 다른 구결들은 매우 정교하게 기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후대 구결 자료의 투식화한 생략 표기의 원래 구결을 알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金光明經≫의 '何以故ㅗㅅ白ノ王尸入ㄱ'와 ≪瑜伽師地論≫의 '何以故ㅗ ㅅㅁㄱ', ≪舊譯仁王經≫의 '何以故のㄱ' 등과 같은 구성의 완전한 모습을 이 자료의 '云何ㅌㅅㄱ乙 一切施ㅣ ノ수ㅁ [爲]ㅅㄴ未尸入ㄱ<12, 5-6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후대의 구결들이 중간에 'ノ수ㅁ' 등의 요소를 생략한 형태로 투식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동일한 구조의 문장이 반복될 경우에는 구결을 앞에만 달고 뒤에서는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

구결자 가운데 '我ㅋ 身ㅎㅊ 充樂ㅅㅣ 彼カ 亦ㅅㄱ 充樂ㅅ未ㅋㅌ가 我ㅋ 身ㅎㅊ 飢苦ㅅㄱㅣ十ㄱ <9:14行>'에서 보이는 '-ㅊ'(익)은 이른 시기 국어의 주격조사를 표시하는 구결자로서 이 자료에서만 발견된

다.[14]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구결자 가운데 그 독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는 '實勿, 復甲尸, 將ㅎ, 五ㅎ, 六ㅎ' 등이 있고, 다른 자료들에서 널리 사용되는 구결자가 사용되었으면서도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로는 '我又', '年支, 今支, 卽支'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我又'를 ≪舊譯仁王經≫의 '我干'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표기한 것으로 본다면, 이 때의 '又'는 '干'와 마찬가지로 두음 표기로서 그 원자는 '奴'가 아닌 '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결토 가운데 '謂ノㄱㄱ 無明 有セㄱㅅ 故支 行 有セㄱ矣ナ <1:17-18行>'의 '-ㄱㄱ'은, 동명사 어미와 보조사의 통합인 '我干 等ン ㄱㄱ<金光明經 15, 13行>'이나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는 '圓滿ンヨ 亦自在乙 得ヨンㄱㄱ<瑜伽師地論 24, 1-2行>' 등과는 달리 '謂ㄱ'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독특하다. '與ンロハ为立, 滿足 令リロハ为立'와 같이 높임의 명령을 표시하는 '-ロハ为立'도 이 자료에서만 발견된다.

(3) 大方廣佛華嚴經 권14

이는 부처의 깨달음을 드러낸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서 줄여서 ≪華嚴經≫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역본으로는 418~420년에 東晋의 佛陀跋陀羅(覺賢三藏)가 번역한 60권본(일명 舊譯本, 晋本)과 당의 實叉難陀가 695~699년에 번역한 80권본(일명 新譯本, 周本), 당의 般若三藏이 795년부터 번역을 하고 澄觀, 圓照 등이 상정하여 798년에 완성한 40권본(일명 貞元本) 등이 있다. 석독구결 자료인 ≪大方廣佛華嚴經≫은 80권본, 곧 주본의 제14권인데, 그 판식이나 지질, 연결부분

14) 이 국어 문법요소는 14세기까지 이어져 14세기의 음독구결 자료 ≪梵網經≫에서도 '-リハ'(익)이 발견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南豊鉉(2001)을 참고하라.

에 간혹 보이는 '권/장차, 각수명' 표시 등으로 미루어 12세기 중반에서 12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결의 기입 역시 간행 시기와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 상 권14는, 會로는 第2會 '普光法堂會', 品으로는 第11品 '淨行品'과 第12品 '賢首品'에 해당하는데, '淨行品'은 智首菩薩의 물음에 대해 文殊菩薩이 답하는 형식, '賢首品'은 문수보살의 요청으로 현수보살이 게송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료는 내용 상 동일한 구조의 문장이 반복되는 일이 많은데, 이러할 경우에는 앞의 문장에만 구결을 달고 뒤에서는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 구결을 생략하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또한 역독점의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舊譯仁王經≫, ≪金光明經≫, ≪瑜伽師地論≫ 등보다는 철저하지 못하다. 여기에는 그리 독특한 구결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의 구결자들을 토대로 다른 구결 자료를 해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其 差別法乙 如印, 威儀ㅋ十 矯進尸 不ㅅㅌ立'의 '印, 進' 등은 이 자료에서만, 그것도 단 한 차례만 발견되는 구결자로서 아직 그 독법이 정확히 규명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구결토 가운데에는 명령의 어미구조체 '-ㅌ立'(-ᄂᆞ쎠)가 이 자료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을 특징적 사실로 들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된 명령법 어미 '-立'는 ≪華嚴經疏≫의 높임 명령형 '-ㅁㅅㅎ立'에서도 보인다.[15] 또한 '度ㅣㅎ尸ㅎ, 思議尸 不ㅅ尸ㅎ'의 예에서와 같이 동명사 어미 '-尸' 뒤에 일반적으로 연결어미를 표시하는 '-ㅎ'가 통합한 경우가 발견된다는 사실도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고대국어에서는 '-ㅎ'가 용언 어간뿐

15) 기존의 연구 가운데 'ㅎ'가 명령법 어미 '셔'를 표기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華嚴經≫의 '離ㅊㅌㅎ<5, 4行>'가 유일례로서 바로 인접한 동일 구조의 문장에서는 'ㅌㅎ'가 아닌 'ㅌ立'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ㅎ'는 '立'의 잘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 아니라 동명사 뒤에도 통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은 ≪金光明經≫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 '淸淨ンㄱ矣ㇾ, 有ナハゐㄱㄱ矣ㇾ, 無ゐㄱㄱ矣ㅗ' 등의 '-ㄱ矣ㅗ'(-ㄴ디여) 역시 이 자료에서 주로 발견되는 구결토로서 '-ㄱ丁'(-ㄴ뎌)의 기원적 구성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의 '知尸 不ンナ尸矣ㇾ'의 '-尸矣ㇾ'는 유일례이다.

(4) 合部金光明經 권3

참회 멸죄는 물론 사천왕에 의한 호국 안민을 강조한 불교 경전으로 隋의 寶貴가 이전에 존재하던 여러 한역본들을 합하고 학사 費長房, 사문 彦琮 등의 도움을 받아 597년에 전8권으로 엮은 책이다. 이를 줄여서 ≪金光明經≫이라고도 부른다. ≪金光明經≫의 한역본으로는 北凉의 曇無讖이 412~421년에 전4권으로 엮은 ≪金光明經≫, 梁의 眞諦가 552년에 전7권으로 엮은 ≪金光明經≫, 그리고 이 ≪合部金光明經≫, 그리고 唐의 義淨이 당시 새로 들여온 梵本을 바탕으로 703년에 전10권으로 엮은 ≪金光明最勝王經≫ 등이 있다. 석독구결 자료인 ≪合部金光明經≫ 권3은, 권말제가 '金光明經'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合部金光明經≫이다. 역대 불교국가에서는 ≪仁王護國般若經≫과 함께 이를 호국신앙의 경전으로 받아들여 왔다고 한다. 고려에서도 왕실의 국가적 불사를 자주 개최했으므로 이 경전이 널리 읽힐 수 있었다. 이 권3 전체의 서체가 구양순체에 가깝고 두꺼운 저지가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각수명 가운데 나타나는 '正安'이 13세기 중반에 활동한 인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1236~1251년에 완성한 재조대장경에도 ≪合部金光明經≫이 수록되어 있으나, 그 권13을 석독구결 자료인 권13과 비교해 보면 내용상 다소의 출입이 있고, 眞言 표기에 차용한 한자도 다르므로 이 둘은

다른 판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구결 가운데 제1, 2장과 제14, 15장에 기입된 구결은 나머지 부분에 기입된 구결과는 다른 필체로 기입되어 있는데, 대체로 고형에 가깝다. 나머지 부분의 구결은 ≪瑜伽師地論≫의 것과 매우 흡사하여 이 두 책의 구결이 동일 인물에 의해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南權熙 1995, 2002:631). 더욱이 이 자료와 ≪瑜伽師地論≫에서만 구결자 '𠃌, 一' 등이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다. 이 책의 구결이 보이는 특이한 사실로는 우선 구결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점, 그리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난상에 교정해 놓았는가 하면 구결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지시선을 그어 놓기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결자 가운데 독특한 사실로는 우선 '泰然ン𠂉 ㅊリ分, 講宣ㅊ白ロナ𠃌矣ㅗ' 등에서 보듯이 사동사 '히-'의 표기에 구결자 'ㅊ'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는 '리'를 표기하는 구결자로 쓰이는 일이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만은 '히-'를 표기하고 있다. 또한 '言乃ニ尸'의 구결자 '乃'도 일반적으로는 연결어미 '-나'를 표기하던 것이어서 독특하다. 구결자 'ㅗ'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 밖에 '具足ン 令リ呂七ノ𠀋七ㅣ<15, 14行10>'의 '呂'도 이 자료에서만 발견되는 석독구결자이다. 이는 14세기의 음독구결 자료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呂七'은 '-리-'와 '-엇-'의 통합체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구결토에 있어서는 우선 '普リ 救濟ンニロ尸分, 著ノ尸 無ニロ尸分, 法眼淨乙 得ヒ尸分' 등의 '-尸分'가 ≪華嚴經≫에서보다 많이 나타난다. 또한 동명사 어미 '-尸' 뒤에 종결의 보조사 '-ㅗ'가 통합한 '-尸ㅗ'도 발견된다. '-尸ㅗ'는 ≪瑜伽師地論≫에서 더 자주 발견되며, ≪舊譯仁王經≫에서는 '-尸ㅈ'로 나타나기도 한다. 외형이 이와 유사한 '-し ㅗ'의 예도 유일하게 이 자료에서 나타난다(深無意乙 說ニロトフ乙ㅗ). 이는 동명사 어미 뒤에 대격조사가 통합한 뒤 조사가 통합한 독특한 것이다. '何センフ乙[者] [爲]五リハ ロノㅊロンナ尸入フ' 등의 'リハ'

역시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구결토이다. 한편 여기에서는 구결토나 구결자들이 표기에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供養ソトニヤ<6, 18行>, 莊嚴セ[之] 具リソヨセノフ入乙' 등의 'ソトニヤ. リソヨセ'은 각각 'ソト(ノフリ)ニ(フ)ヤ. リソヨセ(イ)' 등의 생략 표기이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舊譯仁王經 권上

≪舊譯仁王經≫은 ≪金光明經≫과 더불어 호국신앙의 대표적 경전으로서 후진의 鳩摩羅什이 402년에 上下 2권으로 한역한 책이다. 원 이름은 ≪仁王護國般若波羅密經≫, ≪仁王般若波羅密經≫이며, 줄여서 ≪仁王般若經≫, ≪仁王經≫으로도 부른다. 석독구결 자료로서의 ≪舊譯仁王經≫은 1973년 충남 서산 文殊寺의 金銅阿彌陀如來像의 불복장물에서 발견된 권上의 낙장 5장을 가리킨다. 이 자료가 소개되면서 한국에 석독구결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한글 창제 전시기의 국어사 연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함께 발견된 복장물들이 1096년에서 1346년 사이에 걸친 것이라는 사실과 ≪舊譯仁王經≫이 12세기 중엽 이전에 유행한 권자본이 아니라 절첩의 형태라는 사실로 미루어 이 자료는 12세기 중엽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려 고종 연간(1214~1259)에 仁王經道場이 가장 빈번하게 설치되고 ≪舊譯仁王經≫이 가장 많이 읽혀졌으므로 바로 이 시기에 구결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는 생략 표기가 많지 않고 역독점을 포함한 모든 구결이 상당히 정확하고 해정하게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역독점을 찍어야 할 모든 위치에 역독점을 찍은 것은 아니다. 여기의 구결 가운데 눈에 뜨이는 것으로 우선 '我ヲ'를 들 수 있다. 이는 "우리"를 표기한 것으로 보

이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구결자 'ㅊ'는 두음 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국어 단어가 ≪華嚴經疏≫에서 역시 두음 표기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 '我ㅈ'로 나타났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 밖에 '三ㅸㄴ 手ㅐ'의 'ㅸ', '相ㅋㅁㄷㅋ, 斯ㅁㅅ巴ㅅ 現ㅅㅂㅅㄴㅣ' 등의 '巴, ㅁ' 등은 이 자료에서만 나타나는 구결자이다. 'ㄴ'도 여기에서만 보이는 구결자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ㅋ'의 다른 필체임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 밖에 'ㅅㄷㅀ, ㅅㄴㅀ'등에서와 같이 주로 연결어미를 표시하던 '-ㅀ'가 'ㅅㄱㅀ'에서와 같이 동명사 어미에 직접 통합하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연결어미를 표시하던 '-ㅁ'가 대격조사를 표시하던 '-ㄴ' 뒤에 직접 통합한 경우도 보인다(照ㅅㄴㅁㅁㄴㅁ, 散ㅅ白ㅁㅂㄴㅁ). 이러한 예는 ≪金光明經≫의 '濟度ㅅㄴㅁㅁㄴㅁ'에서 한 번 더 나타나는데, 이때의 '-ㄴ'은 대격조사가 아니라 동명사 어미 '-ㅌ'과 같은 것이다. 이 밖의 독특한 구결토로는 '斯ㅁㅅ巴ㅅ'의 '-巴ㅅ'을 들 수 있다. 이는 이 자료에서만 나타나는 구결토로서 조선시대 이두의 '-巴只'(도록)과 자형과 의미가 일치한다. '入ㅅㄴㅅㄱ, 得ㄴㅅㄱ' 등에서 보이는 어미구조체를 표기한 구결토 '-ㄴㅅㄱ'의 구성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6) 瑜伽師地論 권20

인도의 無著이 미륵보살의 설법을 듣고 지었다는 경전을 唐의 玄奘이 중국에 들여와 648년에 전100권으로 한역한 불교 경전으로 '廣釋諸經論, 十七地論'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瑜伽論'이라고도 부른다. 관행을 닦는 사람인 瑜伽師가 의거하고 행해야 할 경계인 17地를 밝히는 것이 내용이다. 석독구결 자료인 책은 재조대장경에 수록된 ≪瑜伽師地論≫ 100권 가운데 제20권인데, 권말에 '丙午歲(1246)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 되어 있어 1246년판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보물로 지정된 재조본 초쇄본에 비해 인면이 작은 것으로 보아 1246년판의 후쇄본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이 책의 구결은 13세기 후반에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자료의 구결은 생략 표기가 많고 역독점이 찍히지 않은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상당히 정확하게 구결이 달려 있고 구결자체도 꽤 해정한 편이다. 특히 여기의 구결자체가 ≪金光明經≫ 중간 부분의 구결자체와 흡사하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구결자들은 다른 자료에서도 발견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독특한 구결자는 드물다. 다만 '廣ㅣ 說ノ𠂉成ㅣソ尸矢ㅣ<23, 10行>'의 '成'은 이 자료에서 한 번 발견되는 구결자인데 이는 訓借字로서 '일'로 읽힌다. 이 밖에 이 자료에서만은 아니지만,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구결자로 '邑'을 들 수 있다. '若 說法師ㅣ 此 義乙 爲ソ邑人ソ尸入ㅁ<5:17-22>'가 그 예인데 아직 정확한 독법과 기능이 밝혀져 있지 않다. 이 구결자는 ≪華嚴經疏≫에서도 한 번 더 나타난다([此]ㅣ 菩薩ㄱ 年支 方七 少(五)邑ヨ 盛七ヨソ分<10, 14-15行>). 앞에서 '邑, 一'은 이 자료와 ≪金光明經≫에서만 발견되는 구결자임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특히 '一'이 이 자료에서는 '障导乙 爲一ㅣ尸入ㅁ'와 같이 '爲…ㅣ'의 사이에서만 나타난다. 이는 한 동안 '三'(삼)과 같은 구결자로 파악해 왔으나, 최근 '일'로 읽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아롬' 정도로 읽히는 '私亦'의 구결자 '亦'은 다른 곳에서는 모두 명령법 어미 '-셔'를 표기하던 것인데, 유독 여기에서만은 '音'을 원자로 하여 '口/음'으로 읽힌다. '亦'와 외형이 유사한 구결자 '𠀉'은 거의 모두 '음'으로 읽히는데, 이 자료의 '二𠀉 第七子し'에서는 그 독법이 분명하지 않다.

앞서 구결토 '-尸ㅗ/尸ㅈ'가 많은 자료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자료에서도 이 구결토가 '又 復 堅固精進乙 發起ソ3 證得ソ [爲欲]人ソ尸ㅗ<22, 10-11行>, 勝善慧乙 名下 [爲]思擇ㅗノ尸ㅗ<27, 16-17行>.' 등과 같이 나타난다. 특히 후자와 같은 命名構文의 상위문 서술어에 통합하여 나타나는 일이 대부분이다.

5.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한글 창제 이전의 국어사, 특히 국어 문법사의 기술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석독구결 자료와 관련된 사실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자를 이용하여 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차자표기법은 표현을 위한 것과 이해를 위한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표현을 위한 것으로는 고유명사 표기, 이두, 향찰 등이 있으며, 이해를 위한 것으로는 음독구결과 석독구결 등이 있다. 전자의 이두와 향찰, 후자의 음독구결과 석독구결은 모두 차자의 대상이 문장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들은 다시 국어 문장으로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전면적인 것과 부분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두는 부분적 표현, 향찰은 전면적 표현을 위한 것이고, 음독구결은 부분적 이해, 석독구결은 전면적 이해를 위한 것이다. 이렇듯 석독구결은 한문 원문을 완전한 국어 문장에 가깝게 풀어 이해하기 위한 차자표기법인데, 차자의 방법이나 용법에 있어서 향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석독구결이 이러한 성격을 지닌 차자표기법인 만큼 이를 풀어 읽은 석독구결문은 완전한 국어 문장에 가깝다. 따라서 석독구결문과 15세기 언해문은 문장 구조면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공통성을 바탕으로 석독구결문은 15세기 언해문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몇몇 문장의 기원을 알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존재구문의 서술어와 주어, 그 밖의 구문에서 수식어나 목적어 등이 지나치게 길 경우의 피수식어와 수식어, 서술어와 목적어 등이 15세기 언해문에서와는 달리 별개의 문장으로 분리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석독구결법이 한문 원문을 완전한 국어 문장에 가깝게 이해하기 위한 것

이기는 하지만, 한문과 국어 문장의 구조적 차이를 완벽하게 극복하지는 못한 차자표기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석독구결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6종이 있다. 10세기 중엽의 ≪釋華嚴教分記≫, 12세기 초의 ≪大方廣佛華嚴經疏≫ 권35, 12세기 중·후반의 ≪大方廣佛華嚴經≫ 권14, 13세기 중엽 이후의 ≪合部金光明經≫ 권3, 역시 13세기 중엽 이후의 ≪舊譯仁王經≫ 권上, 13세기 말의 ≪瑜伽師地論≫ 권20 등이 그것이다. 두 문장의 짧은 ≪釋華嚴教分記≫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은 역독점의 이용, 구결자 및 용법 등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석독구결은 한글 창제 전시기 국어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향가의 합리적인 해독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최근 새로운 연구 자료로 부상한 부호구결의 정확한 해독 역시 석독구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 석독구결은 이렇게 고대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관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高永根(1998), "釋讀口訣의 國語史的 價値", 口訣硏究 3, pp.1-28.

金永萬(1986), "舊譯仁王經의 釋讀 表記 小考(1)", 國語學新硏究, 서울: 塔出版社, pp.58-69.

金完鎭(1980), 鄕歌解讀法硏究, 서울: 서울大出版部.

_____(2000), 鄕歌와 高麗歌謠, 서울: 서울大出版部.

南權熙(1995), "고려 석독구결 자료 ≪金光明經≫ 권3의 서지적 분석", 구결학회월례강독회 발표요지.

_____(1996), "高麗 口訣資料 ≪大方廣佛華嚴經≫ 卷 第14의 書誌的 分析", 口訣硏究 1, pp.377-402.

_____(1997a), "≪大方廣仏華嚴経疏(卷三十五)≫ 高麗 口訣本에 對한 書誌的 硏究", 韓國伝統文化硏究 12,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韓國伝統

文化硏究所, pp.61-93.
_____(1997b),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pp.147-194.
_____(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南星祐·鄭在永(1998),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pp.195-251.
南豊鉉(1977), "國語 否定法의 發達", 문법연구 3, 서울: 塔出版社, pp.55-81.
_____(1985),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年代", 東洋學 15, 檀國大 東洋學硏究所.[南豊鉉(1999a) pp.133-196에 재수록]
_____(1986), "舊譯仁王經의 口訣에 對하여", 國語學新硏究, 서울: 塔出版社, pp.49-57.
_____(1993),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對하여", 東方學誌 81, 延世大 國學硏究院.[南豊鉉(1999b) pp.9-62에 재수록]
_____(1994), "新譯華嚴經 卷14의 釋讀口訣", 國文學論集 4, 檀國大 國語國文學科.[南豊鉉(1999a) pp.167-199에 재수록]
_____(1996a), "≪金光明經≫ 卷3 釋讀口訣에 나타난 ㄲ의 用法에 대하여", 李基文敎授停年退任記念論叢, 서울: 新丘文化社, pp.228-251.
_____(1996b),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ㄲ/ㄹ'에 對한 考察", 口訣硏究 1, pp.11-44.
_____(1996c),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對한 考察", 國語學 28, pp.1-48.
_____(1998), "≪瑜伽師地論≫(卷20)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pp.253-336.
_____(1999a), 國語史를 爲한 口訣硏究, 서울: 太學社.
_____(1999b),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硏究, 서울: 太學社.
_____(2001), "古代國語의 單母音化에 대하여", 口訣學會 제24회 共同硏究會 發表論文集, pp.39-45.
南豊鉉·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硏究", 東洋學 6, 檀國大 東洋學硏究所.[南豊鉉(1999a:67-137)에 재수록].
朴鎭浩(1997),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pp.117-145].

_____(1998), "고대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pp.121-205.
_____(2001),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特徵", 국제학술workshop(漢文古版本과 그 訓讀) 발표원고.
백두현(1995),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ㅭ-', '-ㅁ-'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어문론총 29, 경북어문학회, pp.45-114.
_____(1996), "고려 시대 釋讀口訣의 선어말어미 '-ㄱ(오)-'의 분포와 문법 기능, 어문론총 30, 경북어문학회, pp.93-136.
_____(1997a), "高麗 時代 口訣의 文字體系와 通時的 變遷",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서울: 太學社, pp.287-384.
_____(1997b), "高麗時代 釋讀口訣에 나타난 先語末語尾의 系列關係와 統合關係", 口訣硏究 2, pp.27-95.
沈在箕(1997), "高麗 時代 釋讀口訣의 讀法",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서울: 太學社, pp.277-286.
沈在箕·李丞宰(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pp.29-111.
安秉禧(1976), "口訣과 漢文訓讀에 對하여", 震檀學報 41.[安秉禧(1992) pp.287-313에 재수록]
_____(1977), 中世國語 口訣의 硏究, 서울: 一志社.
_____(1987), "均如의 方言本 著述에 對하여", 國語學 16.[安秉禧(1992) pp.314-327에 재수록]
_____(1992), 國語史 硏究, 서울: 文學과 知性社.
李建植(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助詞에 對한 硏究", 檀國大 博士學位論文.
李丞宰(1991), "鄕歌의 '遣只賜'와 舊譯仁王經 口訣의 'ㅁㅏㅎ'에 對하여",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서울: 民音社, pp.438-456.
_____(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對하여", 國語學 23, pp.325-379.
_____(1995a), "動名詞 語尾의 歷史的 變化", 國語史와 借字表記, 서울: 太學社, pp.215-252.
_____(1995b), "華嚴經 口訣의 狀態動詞 語幹", 韓日語學論叢, 서울: 國學資料院, pp.495-522.
_____(1996),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主體敬語法 先語末語尾 '-ㅅ(겨)-'", 李基

文敎授停年退任記念論叢, 서울: 新丘文化社, pp.517-556.
_____(2000), "釋讀口訣의 數詞에 對하여", 21世紀 國語學의 課題, 서울: 月印, pp.423-435.
李 勇(2000), "연결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博士學位論文.
李賢熙(1994), 中世國語 構文硏究, 서울: 新丘文化社.
장윤희(1997), "석독구결 자료의 명령문 고찰", 口訣硏究 2, pp.97-129.
_____(1998), "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법 종결어미", 口訣硏究 4, pp.57-84.
_____(1999), "舊譯仁王經 구결의 종결어미", 口訣硏究 5, pp.165-187.
_____(2001), "중세국어 '-암/엄 직ᄒᆞ-'의 문법사", 형태론 3-1, pp.1-21.
_____(2002a), "韓國語 疑問法 語尾의 文法史", 朝鮮語硏究 1(朝鮮語硏究會 編), 東京: くろしお出版, pp.167-205.
_____(2002b),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서울: 太學社.
鄭在永(1992), "統合形 語尾 '-ㄴ든'과 '-ㄴ뎌'에 對한 考察", 國語學 22, pp.371-395.
_____(1995a), "'ㅅ'形 副詞와 'ㄷ'形 副詞", 國語史와 借字表記, 서울: 太學社, pp.285-316.
_____(1995b), "前期中世國語의 疑問法", 國語學 25, pp.221-265.
_____(1996a), "終結語尾 '-立'에 對하여", 震檀學報 81, pp.195-214.
_____(1996b), 依存名詞 'ᄃᆞ'의 文法化, 서울: 太學社.
_____(1998), "合部金光明經(卷3)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pp.113-193.
_____(2000), "古代國語 先語末語尾 '-ᄂᆞ-'와 그 變化, 형태론 2-1, pp.73-106.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E-mail: yoonia@chol.com
접수일자: 2003. 07. 10.
게재결정: 2003. 08. 02.

A General Survey of Seokdokkugyol(釋讀口訣) and It's Materials

Jang, Yoon-hee

Kugyol(口訣) is one of methods of writing Korean by the phonetic or meaning values of Chinese characters intended for understanding text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Kugyol(口訣), in its turn, is divided into Eumdokkugyol(音讀口訣) and Seokdokkugyol (釋讀口訣). Seokdokkugyol(釋讀口訣) is a writing system that was devised to understand classical Chinese texts by translating them into nearly perfect Korean sentences. The sentences that result from this translation process are nearly perfect Korean sentences. Therefore we can find many points common with sentences of 15th century materials written in Hangeul, and can also find the reason or origin of peculiar phenomena found in 15th century material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The predicates and subjects of existential sentences, modifiers and their modificata, or predicates and their objects are often separated into two sentences, while they usually appear together in the same sentence. In this regard, we can't say that Seokdokkugyol(釋讀口訣) perfectly overcame the gap between Korean and Classical Chinese.

Seokdokkugyol(釋讀口訣) materials are valuable for investigating Old Korean. Furthermore, in that we can see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Seokdokkugyol(釋讀口訣) and Hyangchal(鄕札), the formaer can help exact deciphement of Hyangga(鄕歌). Up to now, six volumes that have Seokdokkugyol(釋讀口訣) are known: i.e. ≪*Seokhwaeomgyobungi(釋華嚴敎分記)*≫(the mid-10th century),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大方廣佛華嚴經疏)*≫ volume 35 (early parts of 12th century), ≪*Daebanggwangbulhwaeomgyeong(大方廣佛華嚴經)*≫ volume 14(the mid-12ht century~toward the end of 12th century), ≪*(Habbu)Geumgwangmyeonggyeong((合部)金光明經)*≫ volume 3(after the mid-13th century), ≪*Guyeokinwanggyeong (舊譯仁王經)*≫ volume 1(after the mid-13th century), ≪*Yugasajiron (瑜伽師地論)*≫ volume 20(toward the end of 13th century). These materials show little difference in the kinds of characters or their use.

*Key words: method of writing, Seokdokkugyol(釋讀口訣), Seokhwaeomgyobungi(釋華嚴敎分記),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大方廣佛華嚴經疏), Daebanggwangbulhwaeomgyeong(大方廣佛華嚴經), (Habbu)Geumgwangmyeonggyeong((合部)金光明經), Guyeokinwanggyeong(舊譯仁王經), Yugasajiron(瑜伽師地論)